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일동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b>지혜의 샘터</b> 〈2016-3호〉	발행처 : 일동중학교 도서관 편집인 : 도서부 발행주기 : 월 간 발행일 : 2016.05.31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99번길 39 홈페이지:www.ildong.ms.kr Tel.532-3813		

### 도서관에서 알립니다.

- 신간도서가 입고되었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 도서관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할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책이나 잡지 등은 찢거나 낙서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주세요.

### ☒ 도서대출 BEST 5!

순위	서명
1	황제의 외동딸
2	비밀노트
3	대화
4	레벨업
5	신룡의 주인

### ☒ 다독왕은?

순위	학년 반	이름	대출권수
1	1-1	이오은	14
2	3-4	임오정	13
3	3-2	권오희	11
4	2-2	이오현	7
5	3-3	허오찬	6

### ☒ 다독반은?

순위	학년 반	대출수
1	3-4	23
2	2-3	18
3	3-3	16
3	1-1	15
5	2-2	11

(기간: 2016. 5. 01 ~ 5. 28)

★ 다독왕 5명은 6월 한 달 간 대출권수를 3권으로 늘려드립니다.

틈나는 대로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 ☒ 도서관 이용안내

#### ● 도서관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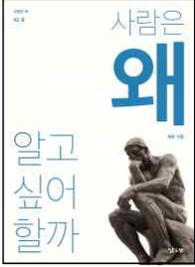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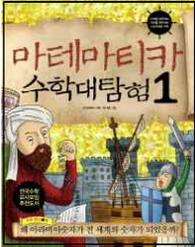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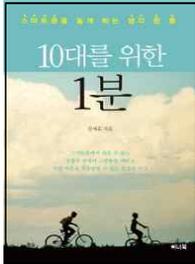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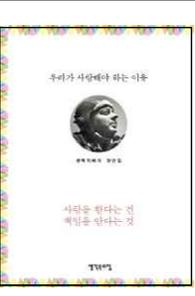
평 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4:30분  
휴관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전교행사일 등

☞ 수업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 대출

-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대출 권수: 1인 2권
- 대출 기간 : 7일이며, 학습만화 등 모든 만화 형태의 도서는 대출되지 않습니다.
- 대출도서의 연체 시 연체일 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 참고도서, 간행물은 반별 수업활용자료로만 대출 가능하며, 개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 시 동일도서나 책값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6월 추천도서

	<p><b>사람은 왜 알고 싶어 할까</b> <span style="float: right;">채운   낮은산</span></p> <p>동서고금의 철학자 및 사상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들, 그림, 문학작품에서부터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과 더불어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례들을 종합 무진하면서 ‘앎’이라는 화두를 능란하게 돌파한다.</p>
	<p><b>한국의 IT 천재들</b> <span style="float: right;">유한준   북스타</span></p> <p>전기 작가인 저자는 국가와 민족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을 위하여 카카오톡의 김범수, 넥슨의 김정주,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네이버의 이해진 대표가 이룩한 IT 산업 창업 성공 신화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다.</p>
	<p><b>마테마티카 수학 대탐험</b> <span style="float: right;">스토리베리 글, 최서영 그림   로그인</span></p> <p>초·중등 수학의 개념과 원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신개념 ‘논픽션 스토리텔링 수학책’. 삽화 또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중요한 사료, 역사적인 장면과 인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내내 참고할 수 있게 구성했다.</p>
	<p><b>10대를 위한 1분</b> <span style="float: right;">김세유   이너북</span></p> <p>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10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 받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 교육자인 저자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힐링노트이다.</p>
	<p><b>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b> <span style="float: right;">생텍쥐페리/송혜연   생각속의집</span></p> <p>생텍쥐페리의 관계에 관한 주옥같은 글들을 모은 잠언집. ‘함께 보낸 시간만큼 책임이 있다’ ‘친구를 파는 곳은 없다’ 등 그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길들임’이다. 좋은 벗과 좋은 만남이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서로에게 길들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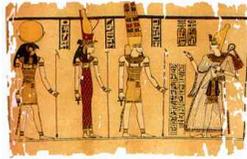
# 책에 대한 모든 것

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그림이나 문자로 기록하기 위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의 책의 형태는 어떠했을까요 ~ ??



## 점토판

- \*최초의 형태
- \*무겁다.
- \*운반이 불편
-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



## 파피루스

-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주재료
- \*가볍지만 잘 부서짐
- \*보관 용이
- \*이집트에서 발견



## 양피지

- \*양이나 송아지의 가죽을 벗겨 만듦
- \*현대의 책 형태의 기원
- \*화려한 제본이 가능
- \*중세 유럽에서 사용



죽간

## 죽간

- \*“책(冊)”이란 문자의 기원
- \*대나무를 쪼개 엮어서 만듦
- \*두루마리의 형태
- \*중국에서 발명

## 종이의 발명



종이가 발명되고 활자술이 발명되면서 책의 발달은 급속하게 이루어져 현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흔히 접하는 많은 책들..이런 발달 과정을 생각하며 읽어보면 어떨까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세계의 도서관

세계의 4대 도서관 중 하나인 영국의 **대영도서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영도서관은 1750년, 대영박물관과 동시에 건립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장서들을 수집, 보관할 목적으로 세워져서 처음엔 이용자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의회 법령에 ‘학문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로 이용자를 제한해 놓았을 정도니까요...

도서관 설립 초기엔 하루에 10명 정도의 이용자가 다녀갈 만큼 이용율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서와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의 책임 사서인 안토니오 파니치(Antonio Panizzi)가 7번째 열람실을 설계하게 됩니다.

1854년에 시작하여 1857년에 완공된 이 건축물은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영도서관은 대영박물관이 설립될 때 <도서부>로 출발했고, 1972년에 <대영박물관 도서관>으로 독립하였는데, 35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세인트 판크라스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박물관 내의 도서관은 남겨두고 대부분의 책들은 영국의 국립도서관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다양한 문화재와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는 대영박물관도 함께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